

은행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



이 정 혁

西村브리핑

내년 4월부터 은행에 불일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출근 전 잠깐 창구에 들르는 일이 더 힘들어지게 됐다. 금융권 노사가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폐점 시간은 오후 4시 그대로다. 하루 창구 운영시간이 7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금융 노조는 이를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성과로 평가한다. 오전 9시 개점을 준비하려면 직원들이 더 일찍 출근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이 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점이다. 벌써부터 ‘은행원이 상전(上典)이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은행을 찾는 고객의 사정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은행 점포는 계속 줄고 있다. 국내 17개 은행의 지점·출장소는 2021년 말 6093 곳에서 지난해 말 5514곳으로 4년 새 579곳이 사라졌다. 2020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890곳에 이른다. ATM도 2020년 말 3만

7537대에서 지난해 6월 2만9810대로 20% 넘게 줄었다. 은행 업무를 처리할 장소가 줄어든 데 이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짧아지는 셈이다.

‘모바일뱅킹 시대에 30분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다. 단순 송금이나 이체라면 그렇다. 그러나 대출, 상속, 외환, 각종 증명서와 사고신고 처럼 여전히 창구를 찾아야 하는 업무가 적지 않다. 스마트폰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은행 창구는 선택지가 아니라 사실상 금융 인프라다.

직장인에게도 30분은 작지 않다. 현재도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4시에 닫는 은행을 이용하려면 점심시간을 쪼개거나 반차·연차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점포 감소로 한 곳에 고객이 몰리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여기서 개점시간까지 늦추면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시간 비용은 더 커진다.

금요일에는 이른바 ‘라스트콜’도 도입된다. 오후 4시 폐점은 유지하지만 영업 종료 30분 전부터 신규 고객 접수를 제한해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지난해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 입장에서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줄었다’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은행원들의 처우가 열악해 근무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715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늘었다. 여기에 이번 노사 잠정 합의에는 총액 임금 3% 인상과 자율출근제 신설까지 포함됐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은 강화되는데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양새다.

노동시간을 줄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서 고객 이용시간은 유지할 방법부터 찾으라는 것이다. 교대 근무를 확대하고 탄력 점포와 공동 점포를 늘릴 수 있다. 우체국 업무 제휴와 이동 점포, ATM 기능 개선 등 대체 수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금융 서비스는 공급자의 편의만으로 설계할 수 없다. 은행 문을 여는 시간은 노사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문을 이용하는 사람은 고객이다. 은행원의 ‘위라벨’을 위해 은행 소비자의 ‘은행 접근권’이 희생되는 구조라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영업시간을 줄이기 전에 고객의 불편을 어떻게 메울지부터 고민하는 배려가 빠진 것부터 여전히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것과 다름 없다.

/linh@metroseoul.co.kr

모아주택 ‘1호’… 이제 진짜 시험대



기 지 수

이 현 진
(정책사회부)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에는 ‘1호’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화한 뒤 처음 입주를 시작한 단지다. 최근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2호, 3호, 100호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장에서 본 1호는 모아주택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소방차 진입조차 쉽지 않았던 좁고 가파른 골목과 낡은 연립주택 자리에 최고 15층 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섰다. 기존 99가구는 215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작게 묶어 빠르게 정비한다는 구상이 실

제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

관건은 그다음이다. 첫 사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다음 과제는 이를 2호, 3호, 100호로 이어가는 일이다.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내건 목표는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이다. 현재 조합설립을 마친 모아주택은 168 곳이지만 실제 착공한 곳은 14곳, 2200가구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치고 착공을 앞둔 곳도 27곳, 3800가구에 그친다. 계획을 실제 공사로 연결하는 속도가 앞으로의 관건인 셈이다.

속도를 강조해온 모아주택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을 더디게 할 변수들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다. 후보지 선정 이후 기획부동산이 개인 소유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파는 식이다.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날수록 주민 동의와 이해관계 조정은 복잡해진다.

1호 현장은 또 다른 속제도 보여줬다. 센트

럴아이파크 14층 통창에서는 한강과 롯데월드타워가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저층주택의 지붕들이 이어졌다. 단지를 벗어나면 좁은 골목과 낡은 빌라들도 남아 있다.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을 묶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개선하겠다는 사업이다. 결국 개별 단지의 성공을 주변 정비로 확산시킬 수 있느냐가 다음 시험대다.

첫 입주 단지는 분명 의미 있는 이정표다. 하지만 첫 사례가 나왔다는 것과 제도가 안착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모아주택이 내세운 가장 큰 경쟁력이 ‘속도’였다면 성적표 역시 실제 착공과 입주로 매겨져야 한다.

서울시가 이제 보여줘야 할 것은 또 하나의 ‘최초’가 아니다. 첫 성공을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호’ 뒤에 긴 공백이 생긴다면 모아주택 1호는 정책의 출발점이 아니라 예외적인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다. /hj@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일 (음 8월 2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배신을 당할 우려가 큰 법입니다. 60년생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72년생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됩니다. 84년생 욕심을 내게 되면 이익은 없고 손해만 보게 됩니다.



소

49년생 사소한 일은 누구랑 의논하지 마세요. 61년생 동쪽은 나쁜 일이 가득합니다. 73년생 재물이 집으로 들어올지라도 그로 인해 해를 입게 됩니다. 85년생 나아가기가 어렵겠습니다.



로랑서

50년생 머리가 혼란스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62년생 금전운이 비로소 돌아옵니다. 74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여행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하도록 하세요.



도끼

51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해야 끝까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63년생 권력과 같은 힘에는 이렇듯하지 마세요. 75년생 좋은 사람이 도와줍니다. 87년생 반드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조

52년생 모든 것이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64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76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 찾도록 하세요. 88년생 세상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뱀

53년생 성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65년생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77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됩니다. 89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남치고 즐거움도 크리라 봅니다.



말

54년생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립니다. 66년생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기보다 주변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78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90년생 세상에 귀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

55년생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67년생 그룹에 행운이 있는 날입니다. 79년생 자신을 아필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9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거짓말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68년생 바라는 것이 매우 잘 풀려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80년생 오늘 하루 유익한 날이 됩니다. 92년생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닭

57년생 안으로 손해와 좌절이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69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하루입니다. 81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93년생 연인을 만들고 싶다면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개

58년생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70년생 신제품 개발을 궁리하기에 최적인 하루입니다. 82년생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94년생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이성이었다면 조심하세요.



돼지

59년생 건강에 항상 신경을 쓰세요. 71년생 부업에 도전해 보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83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95년생 융통성 있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소박한 현인



현인(賢人), 현실을 떠나 출가하여 고요한 수행을 통하여야만 현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수행의 정밀한 경지를 소망한다면 전적인 집중을 위해 출가환경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의 수행이 먼 것만도 아니다. 몸과 마음을 지혜롭게 살피며 유지해나갈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수행이라 할 수 있다.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는 굳이 수행 티를 낼 이유도 없겠지만 세계적 부자인 워런 버핏이나 찰스 멩거는 현인이란 소릴 듣는다. 절대적 세계적 부자 칭호를 듣는 이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말이다. 손에 손꼽히는 부자 중에서도 전 재산을 기부하고 생을 마친 이들도 종종 있지만 그들이 사는 동네의 이름을 따서 ‘오마하의 현인’ 또는 ‘페서디나의 현인’이라고 칭해진다. 그들은 소박한 삶을 즐기며 삶의 본질을 꿰뚫는 혜안이 있었으며 늙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유쾌하게 받아들였다.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시총 1조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일군 찰리 멩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2023년 11월에 만 100세를 한 달 남기고 인생의 긴 여정을 마쳤다. 멩거보다도 6살 아래인 버핏도 지금은 97세가 되었으니 수명 복은 타고난 사람들이다. 특기할 것은 그들은 건강한 식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 애호가들이었다. 콜라와 햄버거를 즐기는 버핏 못지않게 찰리 멩거 역시 평상시에도 햄버거와 탄산음료를 즐겼으며 특히 멩거는 스팸 볶음밥을 좋아했었는데, 마지막 배달음식으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시켰다는 사실도 재밌다. 심지어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을 느끼면서도 가족들이 침울한 분위기에 빠지자 다이어트 콜라가 장수의 원인이었다며 유머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아, 다시 86살이 되고 싶네요.”라고 털어놓았는데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시점을 86세로 복기했던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6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출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레코드를 출격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6
						3		
7		3	4					
						6		4
	3						5	
4		2						
					1	2		9
		1						
3			5	6				

			7					4
							2	8
		9						6
9	2							7
3								5
7							8	9
5						7		
2		1						
	9				3			

1	7	8	6	9	9	2	8
9	9	2	8	7	2	1	8
6	8	2	1	8	2	7	9
8	2	6	8	9	1	2	9
2	9	1	7	2	9	6	8
7	8	9	2	8	6	9	2
8	1	9	9	2	7	8	6
2	6	8	9	1	8	9	7
9	2	7	2	6	8	1	9

2	1	8	8	2	9	9	6	7
8	9	6	7	9	8	1	2	2
7	9	2	6	2	1	8	8	9
6	8	7	1	8	2	9	9	2
9	2	9	2	8	6	7	1	8
2	8	1	9	9	7	8	2	6
9	2	9	2	1	8	6	7	8
8	6	2	9	7	9	2	8	1
1	7	8	8	6	2	2	9	9